

##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의 일어서 발굴 및 재조명 연구\*

박 경 수\*\*

### 차 례

-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김병호(金炳昊)의 일어서: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       | 참고문헌<br>영문초록 |
| III. 조향(趙鄕)의 일어서: 감각적 서정의 세계와 어두운 이면 |              |

### I. 서 론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문학활동은 국내의 문단상황에만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잘 알다시피, 한국문학의 근대적 개화에 기여를 했던 많은 문학인들이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에서 문학수업을 받거나 문학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몇몇은 귀국하기 전에 일본에서 상당한 문학활동을 했으며, 또한 일부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078).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일본에 계속 체류하면서 문학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의 문학과 중에는 국어로 쓰여진 작품들도 있지만 일어로 쓰여진 작품들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이 경우 국어로 쓰여진 문학작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어 왔으나, 일어로 쓰여진 작품들에 관해서는 근래에 들어와서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어로 쓰여진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의 주체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국어인 일어로 문학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못마땅한 일일뿐만 아니라 참으로 미답지 못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어에 의한 문학행위는 그리 간단하게 재단될 수 없다. 특히 그 일어에 의한 문학행위가 국내도 아닌 일본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또 다른 고려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문학 주체의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인식의 문제, 그리고 문학작품의 수용 문제 등이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sup>2)</sup>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제일 한국인의 일어문학이 일본에서 일어로 쓰여진 문학이기 때문에 일본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만날 수 있다. 속문주의(屬文主義)에 의한 언어의 귀속 요건에 따라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일어로 쓰여진 한국인 문학작품들은 당연히 한국문학의 범주 바깥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이들 문학은 일본문학에 편입될 수 있는가? 일부 일본인 학자들이 제일 한국인 문학을 특수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일본문학화되는 과도기적 단계의 문학”<sup>3)</sup>으로 보거나, “조선 민족의 문학인 동시에 일본문학의 하나”<sup>4)</sup>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문학 주체의 요건과 문학 주체가 갖는 민족적 정체성을 축소 내지 무시하는 처사로, 거기에는 언어의 귀속만을 중시

1) 일제 강점기 일어시 연구에 관한 전체적 상황과 일어시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줄고,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 연구」, 『성곡논총』 제33집(성곡학술문화재단, 2002)에서 한 바 있다.

2) 제일 한국인이 일어로 쓴 시를 ‘일어시’라 하여 일본인이 일어로 쓴 ‘일본시’와 구별하기로 한다. ‘일어문학’과 ‘일본문학’이란 용어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것임을 밝힌다.

3) 川村溱, 「在日韓國人文學とは何か」, 『靑丘』 제19호(1994. 봄호), p.33.

4) 小田切秀雄, 「金達壽의獨自性」, 『新日本文學月報』 제38호(集英社, 1965. 3), p.1.

하는 문화제국주의의 발상이 은밀히 개재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속문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국수주의의 편협한 태도를 불러일으키거나, 식민지 문화를 억압하는 문화제국주의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일제 강점기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한국인이 불가피하게 일어로 쓴 문학작품, 즉 일어문학을 속문주의의 요건에 따라 한국문학의 범주 바깥에 놓아 둘 수 없는 것이다. 한국문학에서 언어 문제는 역사상 각 시기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표현방법<sup>6)</sup>과 문학 주체가 놓인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일제는 학교 교육에서 한국인을 일본 제국주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를 국어(당시 조선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했다. 그러다 시기가 지날수록 한국어를 궁극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일문어 시간을 국어시간보다 배 이상 늘렸다. 일제 말기에는 아예 국어 사용을 금지했다.<sup>7)</sup> 이처럼 일어난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 교육과 철저히 차별화 시킨 상황에서 교육되었으며, 도리어 국어의 자리를 차지하여 ‘국어’로 불렸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국어교육보다 일어교육을 훨씬 많아 받아온 당시 한국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은 국내에서 배운 일어교육을 밀천 삼아 일본으로 유학을 했고, 일본에서 일어를 더 세련되게 배우고 일어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어로 나타내는 문학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그들이 일어로 문학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두절미하고 친일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고, 그들의 문학이 실제 어떠한 모습과 세계인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일어로 한 문학행위는 국내와 다른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한국인에게 일어 사용은 무엇보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배움을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었듯이, 일어에 의한 문학행위도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던 문학적

5) 이한창, 「민족문학으로서의 제일 동포문학 연구」, 『日本語文學』 제3집(韓國日本語文學會, 1977. 6), p.249, p.256.

6) 정병욱, 『국문학산고』(신구문화사, 1960), pp.26~27.

7) 이에 관하여 정재철,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의 교육」, 한국교육사연구회 편, 『한국교육사』(교육출판사, 1983. 1), pp.272~356에서 자세히 파악되어 있다.

실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일어는 제일 한국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학적 표현 수단이 된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친일외식에 몰들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면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일어가 제일 한국인의 의식을 표현하는 문학적 수단이자 매개가 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여기서 제일 한국인의 일어문학이 비록 일어로 쓰여졌다고 해서 한국문학의 범주 밖에 놓아둘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 작품을 한국문학의 포괄적 영역에 위치시키면서, 특히 부산·경남지역 시인들의 일어시 작품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한편 이들 작품이 지닌 시 세계의 특징적 면모들을 밝히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활약한 부산·경남지역 출신 시인으로 이름을 알만한 시인은 몇몇에 불과하다. 부산 출신의 김소운(金素雲: 1917~1981), 경남 진주 출신의 김병호(金炳昊: 1906~1961), 경남 사천 출신의 조향(趙鄉: 1917~1984), 그리고 경남 창원 출신인 설창수(薛昌洙: 1916~1998)로 의심되는 성산창수(城山昌樹) 등이 그들이다. 여기서 김소운은 주로 시 번역과 수필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에 창작시로 논의할 만한 일어시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산창수는 설창수로 의심이 되지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김병호와 조향의 일어시를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물론 일어시를 쓴 시인들을 폭넓게 조사해서 그 이력을 밝힐 수 있다면, 이들 외에도 일본에서 일어시 작품을 남긴 부산·경남지역 시인들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 이들 외에 더 이상 추가시킬 시인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부산·경남지역 시인들의 일어시 논의는 단순히 일어시 작품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드러낸다는 서지학적 의의를 넘어서 있다. 일어시 작품들을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 논의를 좀더 확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는 일제 강점기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들 시인들의 정신적 고뇌와 갈등, 그리고 시적 지향의 일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 II. 김병호(金炳昊)의 일어서: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

김병호(1906~1961)의 일어서를 논의하기 전에 그가 어떤 문학 행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병호 시인의 이름은 1980년대 이전에는 어떤 문예사전에든 올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매우 생소한 시인에 속했다. 다만 광복 후 김병호가 작고한 다음, 그와 교분이 있었던 설창수(薛昌洙) 시인이 짙막한 지면을 통해 그를 회고하는 글을 남긴 바 있으며, 역시 그와 친분이 있었던 이경순(李敬純) 시인이 진주시단을 회고하는 글에서 김병호 시인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던 바가 있다.

먼저 설창수의 글을 보자.

四十代 아래인 文人들겐 詩人 金炳昊씨라고 해도 기억이 없으리라. 행여 싶어 學園社의 百科辭典을 뒤져봤으나 없다. 더더구나 鷄林이라고 한몫자 서라벌 城밖의 그 숲 이름으로 바뀐 그 입을 아실 분이 몇이나 되랴. 그런데도 晉州를 중심으로 하여 馬山 釜山 等地에 살고 있는 慶南의 文人들은 거의 안다.

……(중략)……

바로 解放 그해 十一月의 어느 밤 -晉州文化建設隊가 감격의 처녀무대를 위한 演劇 「젊은 繼承者」의 臺詞 연습을 마친 다음이었다. 약간의 醉興 속에 나타났던 初面인 先輩詩人 두 분이 孫楓山 金炳昊 그분들이었다. 이분들은 在北한 小說家 嚴某(필자 주 : 嚴興燮)와 더불어 鄉土 出身의 文人으로서 일찌기 「晉州詩壇」에 글을 내셨고 博文書館 文庫版의 林某(필자 주 : 林和) 編 朝鮮詩人三十三人(필자 주 : 이 시집의 정확한 명칭은 '現代朝鮮詩人選集'이며, 1939년 1월에 學藝社에서 朝鮮文庫 2-1로 처음 간행되었다. 여기에 시 <旅愁> 1편이 실려 있다.)의 一人들이었다.<sup>8)</sup>

이상의 인용 글과 나머지 글의 내용을 합쳐 보면, 김병호는 필명을 계림(鷄林)이라 했으며, 진주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엄흥섭, 손풍산 등과 교분을 맺었던 것으로 보아 카프문학 진영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고, 광복 후에도 이들과 교류하며 진주시단을 이끌었으며, 1961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작고했음이 드

8) 薛昌洙, 「金炳昊에의 낚은 追憶」, 『현대문학』 통권 97호(1963년 1월호), pp.272~273.

러난다. 그리고 광복 후 교편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좌천당하며 경남의 여러 초등학교를 전전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광복 이전이나 이후의 좌익문학 활동이나 성격의 괴팍함 등의 요인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병호는 당시 「유황천(疏黃泉)의 세례(洗禮)」란 제목의 시집 원고를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 이 시집이 실제 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경순 시인의 김병호에 대한 회고의 글은 비록 짧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晉州 土種으로 普通學校 敎員이고 역시 抒情詩를 쓰고 하여 東京에서 발간했던 「文藝戰線」誌(필자 주 : 김병호의 시를 실제 이 지면에서 찾을 수 없다. 기억상의 오류로 보인다)에 작품을 발표한 金炳昊는 해방 후에 최종 勤務處이었던 咸陽 馬川國民學校長으로 發狂하여 釜山에서 凍死했다.<sup>9)</sup>

즉, 김병호가 한때 일본 동경에서 시를 발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매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 등이 위의 글을 통해 확인된다. 일부 일본에서 시를 발표했던 지면을 잘못 말하는 등 오류가 있지만, 김병호 시인의 존재를 새롭게 떠올리는 데 유용한 내용이 들어 있다.

김병호 시인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는 다음, 김병호가 국내에서 발표한 시작품의 일부를 포함한 현대시 관련 자료집이 출간되면서 그의 이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간략한 문학 이력과 작품 서지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사전이 간행됨으로써 김병호에 관한 관심이 한층 확대되었다.<sup>10)</sup> 그런데 이중 권영민이 편찬한 『한국근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0. 7)에 실린 김병호와 관련된 내용은 중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 이 책에는 김병호가 1909년

9) 李敬純, 「文學風土記 -晉州篇」, 『현대문학』 제12권 3호(1966. 3), pp.240~241.

10) 김성운 편, 『카프시집 II』(시대평론, 1988. 11)에서 김병호의 시 <그러케 내가 뭐라 하든가>(1930. 8), <病床에서>(1932. 3), <안해의 靈前에>(1933. 1)를 조사해서 올렸으며, 서범석 엮음, 『한국 농민시』(고려원, 1993. 4)에서 시 <天禍>(1930. 3), <月下의 一群>(1935. 11)을 조사해서 실었다. 그리고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0. 7)에서 김병호의 간략한 이력 사항과 작품 서지를 시, 시집, 수필집, 평론의 순서로 작성해 놓았다.

경남에서 출생하여 보성전문학교에서 수학, 1949년에 시집 『황야의 규환』을 간행하고, 1961년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한 결과, 경남 출생이라는 점과 1961년에 사망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두 사실과 달랐다.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김병호의 시집으로 『황야의 규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집을 확인한 결과, 시집 이름이 『황야에 규환』으로 약간 다르지만 시인은 분명히 김병호(金炳昊)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집의 저자를 일본에 유학한 바 있는, 진주 출신의 시인 김병호로 보는 데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시집의 저자 김병호는 진주 출신 시인 김병호와 한자 이름까지 같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시집의 서문과 끝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집의 서문은 조지훈(趙芝薰)이 썼는데, 서문의 끝 부분에서 “젊은 詩人 金炳昊君의 詩稿 앞에 이 글을 쓰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만일 여기서 시인 김병호를 진주 출신의 김병호로 본다면, 1920년생인 조지훈이 1906년생인 김병호에게 “젊은 詩人 金炳昊君”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집의 저자인 김병호는 진주 출신의 김병호가 아니다. 이를 좀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시집의 ‘끝말’에 있다.

끝으로 이 小著를 出版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아끼지 않은 母校 高麗大學 敎授 趙芝薰 先生님과 親友 諸人에게 뜨거운 感謝를 表하여 마지않는 바이다.<sup>11)</sup>

이 글을 통해 시집의 저자인 김병호는 당시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시인 조지훈과는 사계관계에 있던 젊은 시인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시집의 제1부에 발표한 시는 해방 전의 작품이라 했는데, 진주 출신의 김병호 시 작품과 일치되는 작품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시집의 저자 김병호는 진주 출신의 시인 김병호와 동명이인으로 서로 다른 사람임이 밝혀졌으며, 그동안 시집 『황야에 규환』이 진주 시인 김병호의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진주 시인 김병호의 이력은 다행히 함양교육청의 도움으로 그의 이력서를

11) 金炳昊, 시집 『荒野에 吶喚』(평화당인쇄소, 1949. 3. 1)의 ‘끝말’.

볼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 이 이력서에 의하면, 시인 김병호는 1906년 11월 16일생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201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25년 3월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 특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조선공립보통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가락공립, 진주공립, 생림공립, 대산공립, 악양공립, 무계간이학교 교사를 거쳤다가 1945년 10월 예하공립보통학교부터 1954년 4월 백전국민학교까지 교장으로 전전하다 신병으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신병은 시인 이경순이 말한 바에 따르면 발광한 것인데, 1961년 겨울 부산 해운대에서 동사할 때까지 그는 철저히 숨겨진 존재였던 것이다.

진주 시인 김병호는 확실히 파란 많은 삶을 살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시인이며, 시집조차 하나 남겨져 있지 않은 미명(未明)의 시인이다. 그런데 이 김병호는 그의 이력사항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경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한 1925년을 즈음하여 국내의 문단과 일본문단 양쪽에 시를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의 문단에는 《조선문단》 1925년 4월호에 시 <안진방이꽃>이 당선되어 발표된 이래 1930년대 중반 이후까지 《대중공론》, 《음악과 시》, 《전선(全線)》, 《비판》 등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시작품의 대부분이 당시 좌익문학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기관지들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시작품들 대부분은 프로시의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엄홍섭, 손풍산 등과 어울려 지냈다는 증언을 참고하면, 그는 카프에 가담해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복 후에도 좌익문학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광복 후에 교사로서 잦은 좌천을 당하기도 하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그의 성격에 기인한 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좌익문학 활동의 전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본문단에 발표된 김병호의 일어시도 국내 문단에 발표된 국어시와 같은 범주에 놓여 있다. 일본에 발표된 그의 시를 충분히 찾은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필자가 조사한 시작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今日は朝鮮のお盆です(오늘은 조선의 추석날이다)>, 《日本詩人》



(1925. 12).

- (2) <色々思ひながら野山を歩く(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산야를 걷는다)>, 《日本詩人》(1926. 4).
- (3) <朝鮮民謠意譯>, 《日本詩人》(1926. 8).
- (4) <蘆(갈대)>, 《日本詩人》(1926. 9).
- (5) <おりゃあ朝鮮人だ(나는 조선인이다)>, 《戰旗》(1929. 3). 『日本プロレタリア詩集』(戰旗社, 1929. 7)에 재수록.

이상에서 (3)의 <朝鮮民謠意譯>은 창작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면, 불과 4편의 일어서 작품이 찾아진다. 그런데 비록 작품 수는 보잘것없지만, 일련의 작품을 《日本詩人》지와 《戰旗》에 실고 있는 사실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김병호가 여러 시작품을 발표한 《日本詩人》은 1921년부터 1926년까지 신조사(新潮社)에서 발행된 시 전문 잡지로 초기에는 여러 시파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잡지였으나 나중에는 민중시파 시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잡지였다.<sup>12)</sup> 김병호는 바로 민중시파가 중심 역할을 했던 《日本詩人》에 신인으로 작품을 투고하여 일정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5)의 작품을 발표한 《戰旗》는 일본 나프(NAPF)의 기관지였으며, 그것이 또한 일본프로레타리아시집에 재수록되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시가 갖는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지향적 시 세계는 그의 첫 작품인 <今日は朝鮮のお盆です(오늘은 조선의 추석날이다)>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오늘은 조선의 추석날이다  
불쌍한 민족에겐 돌도 없는 위로의 날이다  
대흥수도 있었지만  
폭풍우의 기습도 당했지만  
그러나 오늘만은 누구네 집에도  
한 그릇의 국과 한 병의 술이 있다

12) 三好行雄 外 編, 『日本現代文學大事典』(東京: 明治書院, 1994. 6), p.434.

모두가 새 옷을 입고(두 셋의 봉급으로)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저녁 무렵에는 농악대가 반주하고 노래부르며 북적거린다  
목숨을 부지하는 전담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잊기라도 한 듯이  
내일부터 또다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 자신들을 잊기라도 한 듯이  
오늘 이 하루를 노래하고 즐긴다  
불쌍한 민족에게 돌도 없는 위로의 날이다.

-<今日は朝鮮のお盆です(오늘은 조선의 추석날이다)> 전문<sup>13)</sup>

위의 시는 수미상관과 도치, 그리고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작품의 시적 수준에서 별로 볼 것이 없으나,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시적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단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 시는 일상의 고통스런 현실과 이를 잊고자 하는 추석 명절의 상대적 흥겨움과 위로의 상황을 날카롭게 대조시켜 놓으면서, 궁극적으로 민족 현실의 모순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시 <色々思ひながら野山を歩く(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산야를 걷는다)>는 약간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지닌 서정적인 작품이지만, 역시 현실을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는 점에서 시 세계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황량한 겨울 들판을 걷는다.  
계곡에서 시신 앞에 향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저녁을 짓는 산골 여인이 한 명 살고 있는 듯하다.  
여름날 소먹이는 장난꾸러기 꼬마가  
매미를 잡으러 올라간 원숭이 같은 어린 중을 괴롭히기 위해  
발라놓은 쇠뿔이 우리의 마른 나무에 말라붙어서  
나환자의 흑같이 되어 있다.

-<色々思ひながら野山を歩く(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산야를 걷는다)> 일절<sup>14)</sup>

13) 『日本詩人』(1925. 12).

14) 『日本詩人』(1926. 4).

황량한 겨울 들판을 시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산골 여인이 외롭게 밭을 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름날 발라놓은 쇠똥이 말라붙어서 나환자의 흑같이 흉측스럽게 된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즐겁지 않는 생각의 단면들이다. 다음의 시 <蘆(갈대)>도 현실에 대한 자조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되, 그것이 민족의 역사현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갈대여! 빨리 크게 자라라  
불쌍한 동포가 초가집 두더지가 사는 구멍같은  
온돌에서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은 망한다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술을 마시고는 노래를 부르고  
너를 안고 울 것인가.  
꽃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개질을 하는 것 같이.  
-<蘆(갈대)> 일절<sup>15)</sup>

위의 시는 민족현실에 대한 자조의 심정을 갈대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민족은 연약하면서 하얗게 말라 가는 갈대의 존재에 상응하고 있으면서, 가난으로 하루도 목숨을 이어가기 힘든 현실을 두고 “우리 조국은 망한다”는 극단의 자조와 함께 현실 도피와 비탄에 빠지는 자포자기의 심정까지 드러내고 있다.

나는- 조선인이다!나라도 없으면 돈도 없다/즐거운 일이라곤 물론 없지 만/에치로운 눈물도 없애버렸다//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일조융화(日朝 融和)란 어떤 것인가!/우리들은 너무나 속고 있다/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은 누군가가/조상 대대로 전해온 논밭은 누군가가/결신들린 듯이 앓아가 버렸다/지금은 몸둥아리 하나뿐인 이 몸이 남아있을 뿐이다//너희들은 일하라고 만 말하는 것인가!/너희들은 우리들이 게으름이라도 피우고 있다는 것인가/

15) 『日本詩人』(1926. 9).

도대체 일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그리운 고향의 산천을 뒤로하고/  
북으로는 남만주 동으로는 일본으로/밀려가는 여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  
가/나조차 몸을 적국(敵國)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마음/너희들은 알 수 없  
을 것이다!//어디로 갈 곳도 없고/그저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이/영주할 땅이  
있다고 기어이 믿고야 마는 마음이/오늘도 오늘도 수백의 백의인(白衣人)을  
태웠다/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 뽀- 소리를 낸다!/마지막이 막장 끝인가  
탄광에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おりやあ朝鮮人だ(나는 조선인이다)>에서<sup>16)</sup>

이 시는 무산계급의 프롤레타리아의식이 민족의식과 결합되어 일제하의 민  
족 전체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작품이  
다. “나라도 없으면 돈도 없고/즐거운 일이라곤 물론 없지만/애처로운 눈물까  
지 없애버렸다”고 한 대목이 민족의 무산계급적 현실을 말하면서 그 비극적 상  
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은 계급적 관점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몸을 적국(敵國)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마음  
/너희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의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일제의 비인간적 착취  
와 수탈에 대한 인식이 ‘적국’으로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프롤  
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을 관념적 차원에서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기본 축으로 삼아 계급의식을 현실적 구체성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로 쓰여진 이 시가 오히려 일어로 쓰여졌  
기 때문에 더욱 의의를 가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쓰여진 작품들이 일제의 검열과 탄압에 의해 항일의 목소리를 낮추거나 은밀  
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달리, 이 작품은 일본문단의 한 가운데서  
항일의 목소리를 민족적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유감 없이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진주 시인 김병호는, 비록 몇몇의 작품에 국한된 논의였지만, 일제 강  
점기에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정면으로 떠올리면서 일본문단에 고하는  
한편 현실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자조와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시는 충분한 시적 형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  
족적 정체성의 인식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작품으로 소중하게 읽어볼 필요

16) 『戰旗』(1929. 3).

가 있다고 평가된다.

### Ⅲ. 조향(趙鄉)의 일어서: 감각적 서정의 세계와 어두운 이면

시인 조향(1917~1984, 본명 趙燮濟)은 전세기 부산에서 결성된 ‘후반기동인’의 핵심 인물로 활약한 시인이면서 특히 초현실주의의 시 경향을 추구했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서 일련의 일어서 작품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의 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항 정도로만 기술되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된 적이 없다. 따라서 조향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작품을 발표했는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어찌 말하면 조향의 일어서 작품은 그의 시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셈이다.

조향의 일본에서의 문학활동 상황은 그가 직접 쓴 <二十年の 발자취>(《自由文學》, 1958. 10)에 비교적 소상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 발표한 일어서 작품들 중에 16편의 작품이 조향 사후에 발간된 『趙鄉全集 1·2』(열음사, 1994)에 번역되어 실려 있다.

먼저 조향이 쓴 <二十年の 발자취>를 보면, 그는 대구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하고 김해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일본 와세다대학의 문학 강의록이 담긴 잡지를 받아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시를 자주 실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일어서 발표의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러다 1930년대 말 박두진, 김종한 등이 추천을 받을 당시 국어에 자신이 없어 오오사카(大阪)에서 발행되던 《日本詩壇》에 ‘月淚薰’이란 필명으로 작품을 투고하여 여러 차례 게재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조향은 이를 계기로 나중에 《日本詩壇》의 동인이 되어 ‘趙薰’이란 필명으로 거의 매일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으며, 또한 1941년 일본대학(日本大學) 전문부 상경과에 입학하여 잠시 수학하기도 하면서 토오쿄오(東京)에서 발간된 《詩文學研究》 지에도 동인이 되어 광복 때까지 계속 문학 활동을 했다고 회고했다.

조향은 일제 강점기 말기부터 광복 때까지 상당수의 일어서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발표된 그의 일어서 작품 전체를 찾아서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가 ‘月淚薰’ 또는 ‘趙薰’이란 필명으로 《日本詩壇》에 발표한 시작품의 상당수를 필자가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작품들은 광복 이후의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견주어본다면 문학활동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더러는 습작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작품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들은 조향의 초창기 시적 지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시인의 내면의식과 세계관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현재까지 필자가 찾은 조향의 일어서 작품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 목	게제지 권:호	발행시기	비고 1	비고 2
小さな事務室	日本詩壇 8:9	1940. 9		*필명:月淚薰 *選外佳作-기록만 있음.
病室 (*筆名 月淚薰)	日本詩壇 8:10	1940. 10		
哀歌	日本詩壇 10:2	1942. 2	○	2편
駱駝	日本詩壇 10:3	1942. 3	○	
金魚葬, 墓	日本詩壇 10:4	1942. 4	○	
憧憬	日本詩壇 10:5	1942. 5	○	
馬山港	日本詩壇 10:6	1942. 6	○	
春愁	日本詩壇 10:6	1942. 6	○	
翼 - 讚歌	日本詩壇 10:7	1942. 7		
望郷	日本詩壇 10:8	1942. 8		
郷愁 - 駕洛の想い出	日本詩壇 10:9	1942. 9		
廢園の歌	日本詩壇 10:10	1942. 10	○	
少女	日本詩壇 10:11	1942. 11	○	譯詩(金洙敦)
病床吟	日本詩壇 10:12	1942. 12	○	
瞳	日本詩壇 11:2	1943. 2	○	
冬眠, 召燕歌	日本詩壇 11:3	1943. 3	○	
郷愁	日本詩壇 11:5	1943. 5	○	
春日煦煦	日本詩壇 11:6	1943. 6	○	
少年	日本詩壇 11:10	1943. 10	○	
凡笛抄	日本詩壇 10:11	1943. 11		
無題 - 綾子に	日本詩壇 10:12	1943. 12		

\* <비고 1>에 ○한 것은 『趙郷全集 1』(열음사, 1994. 8)에 번역되어 있는 일어서 작품을 표시한 것임.

이상은 모두 《日本詩壇》에서만 찾아진 작품들로 번역시를 제외하고 모두 20편이다. 이 외에도 <村驛の秋(시골역의 가을)>, <雪日抄>, <六號室>, <北國の歌(북국의 노래)>, <現代輕裝美學>, <靜物二題> 등의 일어서 작품들이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日本詩壇》, 《詩文學研究》에 발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sup>17)</sup> 현재까지 이들 작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작품들만으로도 조향이 일제 강점기 말기에 상당한 일어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습작기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조향의 한정된 일어서 작품들 중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을 보기로 하자.

① 하얀 돛배가 돌아오면/작은 항구에는 불이 켜진다//자주빛 어스름으로  
저무는 舞鶴의 산허리에/꼬리 긴 흰 문어연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는 이른  
봄//어두운 다리 밑에서 비렁지의 무리가/거미들처럼 기어 나올 무렵/粘土빛  
埋築地에 서커스의 천막이 흔들리면서/손님을 부르는 슬픈 클라리넷의 노스  
탈자!//죄그만 埠頭/解船 위에는 인간들이 붉비고 하얗게 탁해진 먼지 냄새  
- <馬山港>에서<sup>18)</sup>

② 먼 先祖들의 무덤 앞에는/푸른 이끼가 낀 望柱石이 老衰를 거둬주고/  
그 一帶의 잔디가 벗겨져 있으며/소나무 줄기엔 산새의 배설물이 허영계/걸  
려 있기도 하고/松籟가 寂寥를 노래하고/바스락거리는 암탐의 발소리/침침  
한 대밭 속에는/어린 날 어머니의 무서운 옛이야기가/잊혀진 손수건처럼 하  
얗게 남아 있기도 하여……//풀이 모두 무성한 古風의 기와로 가득 찬/童話  
처럼 참으로 오래된 마을/兩班의 전통이 곱광이처럼 어두운 마을/木花꽃이  
끝없이 피어 있는 山地의 밭길에/土犬이 땅을 훑으면서 지나가기도 하고/완  
만한 傾斜地에서는/황금빛 農牛가 MO- O- 저녁 무렵을 울며/牧童들은 아  
리랑을 노래하면서/그리고 호박꽃 빛으로/燈臺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도 하  
여……//참으로 고향은/석양에 彩色된 牧場의 빛을 띠고 있었다/고향 마을은  
네덜란드의 風車처럼/언제나 대범하게 돌아가는 幻影이었다  
- <鄉愁> 부분<sup>19)</sup>

17) 徐範錫, 「趙鄉論(1)」, 『國際語文』 제6·7합집(국제어문학연구회, 1986. 6), p.232의 <附錄>으로 붙은 “趙鄉文學年譜”에 이런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18) 『日本詩壇』(1942. 6). 이하 일어서의 번역 인용은 『趙鄉全集 1』(열음사, 1994)에 실려 있는 조봉제(조향의 친동생)의 번역시로 하되, 이 전집에 실려 있지 않는 작품의 번역은 별도로 한 것이다.

①은 제목처럼 마산항의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종의 회화시이다. 조향은 1938년 진주에서 마산으로 이주한 후 1947년 동아 대학 전임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줄곧 마산에서 살았다. 마산은 조향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런 마산을 배경으로 한 그의 시편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어두운 다리 밑에서 비력지의 무리가/거미들처럼 기어” 나오고, 서커스단이 “손님을 부르는 슬픈 클라리넷”의 소리가 들려오며, “艇船 위에는 인간들이 붐비고 하얗게 탁해진 먼지 냄새”가 나는 곳으로 시적 자아에게 마산항이 각인되어 나타난다.

고향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선은 ②의 시에서도 한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놓여 있기도 하다. 이 시는 ‘父祖의 땅 遷德里의 추억’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사천군 환덕리는 조향의 친가가 있었던 곳으로 짧게나마 그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그런데 이 환덕리에 대한 기억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푸른 이끼가 낀 望柱石이 老衰를 거듭하고 /……/어린 날 어머니의 무서운 옛이야기가/잊혀진 손수건처럼 하얗게 남아 있기도” 한 곳, 그리고 “兩班의 전통이 곱광이처럼 어두운 마을”이 시인에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덕리는 “황금빛 農牛가 MO- O- 저녁 무렵을 울며/牧童들은 아리랑을 노래”하는 즐겁고 정겨운 곳이면서, “참으로 고향은/석양에 彩色된 牧場의 빛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조향은 광복 후 초현실주의의 미학을 탐구하는 쪽으로 경사되어 갔지만, 그의 초기 일어서의 세계에서는 고향의 식을 시 의식의 한 뿌리로 삼으면서 감각적 서정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이들 작품 이외에도 <望郷>, <春愁>, <郷愁 - 駕洛の想い出(駕洛를 생각하며)>, <村驛の秋(시골역의 가을)>와 같은 작품들이 더 있으면서 모두 고향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조향의 일어서에 나타나는 고향의식은 이국정서와 결부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위의 시 <馬山港>에서도 “粘土빛 埋築地에 서커스의 천막이 흔들리면서/손님을 부르는 슬픈 클라리넷의 노스탈자!”라고 표현한 것이나 시 <郷愁>에서 “고향 마을은 네덜란드의 風車처럼/인제나 대범하게 돌아가는 幻影

19) 『日本詩壇』(1943. 5).



이었다”라고 한 구절에서 이런 면모가 뚜렷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의 시는 고향의식을 노래하면서도 정서적 공감의 대상을 이국적 풍경이나 사물에 두고 자 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일어시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릴케 시의 영향으로도 파악된다.<sup>20)</sup>

조항의 일어시는 또한 청년기의 연애감정을 이국정서와 환상적 분위기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특징을 이룬다. 시 <少女>, <哀歌>, <廢園の歌(폐원의 노래)>, <瞳(눈동자)>, <春日煦煦> 등의 작품들이 이런 점을 보여준다. 몇 작품을 예로 보자.

- ① 少女는 절레꽃 열매처럼  
셋빨간 思想을 고이 기르고

少女의 영혼은 함박눈 내려 쌓이는 밤같이  
차갑게 남 몰래 속삭인다

……(중략)……

少女는 꽃잎처럼 떨리는 심장에  
「아라베스크」 무늬의 사랑을 꿈꾼다

少女는 白麻布 베드 위에서  
초록빛 달부드레한 樹液을 生理하며

少女는 사랑의 불이 붙는 입술에  
청춘의 동그만 무덤을 마련한다  
-<少女>의 일절<sup>21)</sup>

- ② 紅燈처럼 화려하게 酒精의 꽃이 피어  
돌비늘 같은 星座를 비추는 유리창

20) 시 <春日煦煦>(『日本詩壇』 11:6, 1943. 6)에서 “쓸쓸하여 돌아보니 <릴케의 詩集>이/바람에 날려서 날개짓하고 있다.”고 한 구절이 있으며, 시 <廢園の歌(폐원의 노래)>(『日本詩壇』 10:10, 1942. 10)에서 릴케의 <憧憬이란> 시에 나오는 “願望이란 日常의 時間이/영원한 것과 낮은 소리로 주고 받는 對話”란 구절이 본문 위에 올려져 있다.

21) 『日本詩壇』 제10권 제11호(1942. 11).

<마르그리트처럼 붉은 동백꽃을  
이 가슴에 꽂아도 끝내 안되겠지요?>

순정을 경멸하는 사나이들의 노리개가 되어도  
너는 카나리아처럼 귀여운 습성을 소중히 간직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양 술에 절은 自敍傳을 읽고 있다.

-<哀歌> 중에서<sup>22)</sup>

③ 당신의 紫水晶빛 窓  
그 귀여운 두 개의 窓을 활짝 여세요  
아침은 행복한 꽃마구니!

우유빛 思念이 방울져 흐를 것 같습니다  
埤頭처럼 밝은 하루가  
꽃가게의 午前처럼 눈부시다

깨끗이 세탁된 純白한 시트 위엔  
어제의 追憶이 꽃잎처럼 떨어져 있다  
당신은 창문에서 앵무새처럼 고개를 가웃거린다

-<瞳(눈동자)>에서<sup>23)</sup>

이상의 시편들은 모두 여성을 시적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이다. 그가 “매월 <日本詩壇>에다 戀愛詩만 썼다”<sup>24)</sup>고 했듯이, 당시에 썼던 연애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시편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연애 감정을 노래했다고 해서 천박한 수준에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①에서 “少女의 영혼은 함박눈 내려 쌓이는 밤같이/차갑게 남 몰래 속삭인다”든가, “少女는 白麻布 베드 위에서/초록빛 달부드레한 樹液을 生理하며”와 같은 구절은 비유적 표현에서 참신성과 세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②에서도 홍등가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너는 카나리아처럼 귀여운 습성을 소중히 간직한다./아무렇지도 않은 양 술에 절은 自敍傳을 읽고 있다.”고 하여 차분하게 시적 극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③에서도 여인의 밝고 빛나는 표정을 “우유빛 思念이 방울져 흐를 것 같습니다/埤頭처럼 밝은 하루가/꽃가게의 午前처럼 눈부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감각과

22) 『日本詩壇』 제10권 제2호(1942. 2).

23) 『日本詩壇』 제11권 제2호(1943. 2).

24) 趙郷, 「二十年的 발자취」, 『自由文學』(1958. 10).

관념의 조화로운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조항의 일어서는 이러한 시적 표현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가 시적 대상을 감각적인 형상화와 환상적 분위기를 찾는 데 집중함으로써 낭만적 세계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즉, 조항이 시를 썼던 당시, 일제 강점기 말기의 가혹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시 <翼(날개)>는 친일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일면을 보여준다.

어렴풋이  
받아오는 신세기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끝없는  
폭격행!  
급강하!  
눈동자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순간인 듯 눈부시면서도  
<사나이>란 일자(一字)를 깨뜨리기라도 하듯이 꼭 쥘다  
순간,  
엄청난 순간!

장미 빛의 구름 사이를 정교하게 수놓아  
방약무인,  
저 분토로 향하는 불꽃같은 의욕!  
창공은 점점 저물어가니  
한없이 아름다운 코발트빛 같다.  
성충권을 정벌한다……  
한 장의 종이 조각처럼 나뭇잎처럼  
우수수……  
앗! 잠깐 사이에 몸을 돌려  
남아서 녹슨 세기의 철 빗장에는  
여기저기 새로운 냄새의 탄흔이  
새겨지고 있다.  
하늘 한쪽 끝에서 일는지도 모른다  
눈부신 오전 항구의 길모퉁이 일는지도 모른다  
창백한 망명정권의 만가 곡조가  
잔잔히 흘러나온다.  
은빛 날개는

아름다운 조감도 위를 잉어처럼 헤엄치며  
새똥과 같은 폭탄을  
대연하게  
떨어뜨려 정벌한다.  
- <翼(날개)> 전문<sup>25)</sup>

위의 시는 ‘讚歌’란 부제가 붙어 있다. 이는 일제가 말하는 ‘대동아전쟁’ 즉 태평양전쟁에서 전투기를 타고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미사여구를 동원한 환상적 묘사를 통해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의 신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성전을 치른다고 선전했다. 이 시 역시 이러한 태평양전쟁의 선전 구호를 은밀하게 담은 한편 전쟁의 엄청난 비극을 숨긴 채,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날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전투기의 비행과 연결시켜 환상적인 꿈을 갖도록 착각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태평양전쟁에의 환영을 찬양했던 것이다. 조항의 일어서가 언어적 표현의 세련성을 통해 다른 시인의 시작품들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해도, 이렇게 그의 시에는 역사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항의 일어서에서 이와 같은 작품이 <翼(날개)>에 국한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 그의 시 전체를 싸잡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말기의 역사적 비극이 조항의 경우에도 비록 일시적이었겠지만 역사현실에 대한 오판의 자취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IV. 결 론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문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활동의 유산들이지만, 그동안 한국문학의 논의에서 방기된 채 그 영역 밖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제일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져 쓰여진 문학도 일단 한국문학의 넓은 범주에 포괄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

25) 『日本詩壇』 제10권 제7호(1942. 7).

다는 점을 전제로, 당시 제일 한국인 일어시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부산·경남지역 시인으로 일본문단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들의 시작품들을 발굴하고, 이들 작품들이 지닌 성격을 집중 검토했다.

부산·경남지역 시인으로 일제 강점기의 일본문단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시 작품 활동을 했던 시인으로 진주 출신의 김병호(金炳昊)와 마산 출신의 조향(趙尙)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성산창수(城山昌樹)란 창씨명으로 일어시를 발표한 이가 부산·경남지역 시인으로 의심이 되지만, 아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먼저 진주 출신의 김병호는 광복 후에 시집 『황야(荒野)에 규환(叫喚)』을 낸 저자 김병호와 동명이인으로 서로 다른 인물임을 밝힌 다음, 가능한 대로 그의 문학 이력을 복구하면서 그가 남긴 일어시 작품을 검토했다. 김병호가 남긴 일어시 작품은 몇 작품에 불과했지만, 그의 시는 기본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족적 비애와 울분을 자조와 비판의 목소리에 섞어 토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그의 시는 투박하고 직설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 비판적 목소리를 담고 있는 주체적 시 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조향의 일어시를 가능한대로 발굴하여 그 서지 사항을 밝힌 다음, 그의 시가 고향의식을 시 의식의 한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기의 내면의식이 참신한 비유와 감각적 서정의 표현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적 기교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차례대로 논의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翼(날개)>에서 보여주었듯이, 당대 일제가 선전한 태평양전쟁의 환상을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찬미하는 작품을 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일어시에 시대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두 시인의 일어시를 통해 고찰되었듯이,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 작품들은 민족적 정체성과 근대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제에 동화되어 있거나 역사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들을 일제 강점기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어시 작품들이 모두 반민족적 친일 의식을 담

고 있다는 식의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는 좀더 폭넓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자료 조사를 한층 폭넓게 하는 한편 필요한 학제적 연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지역문학, 제일 한국인 문학, 일어시, 민족적 정체성, 친일시, 김병호, 조향.

## 참고문헌

### 1. 자료

- 大村益夫·任展慧 編(1984. 3).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横浜: プリントピア.
- 大村益夫·布袋敏博 編(1997. 1).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東京: 綠陰書房.
- 문학과비평사 편(1990. 9~1990.12).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목록(1)·(2)」, 『문학과 비평』 1990년 가을호~1990년 겨울호, 문학과비평사.
- 金炳昊(1949), 『荒野에 叫喚』, 평화당인쇄소.
- 趙郷(1994). 『趙郷全集 1·2』, 열음사.
- 『日本詩人』, 『日本詩壇』, 『戰旗』 등.

### 2. 논저

- 박경수(2002. 2).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일어시 연구」, 『성곡논총』 제 33집, 성곡학술문화재단.
- 朴明用(1992. 12). 『韓國 프롤레타리아文學 研究』, 서울: 글벗사.
- 徐範錫(1986. 6). 「趙郷論(1)」, 『國際語文』 제6·7합집,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 薛昌洙(1963. 1). 「金炳昊에의 낯은 追憶」, 『현대문학』 통권 97호.

- 宋敏鎬(1991. 10). 『일제말 암흑기문학 연구』, 서울: 새문사.
- 李敬純(1966. 3). 「文學風土記 - 晉州篇」, 『현대문학』 제12권 3호.
- 이광수(1994. 4). 「조향의 전기 시세계 연구」,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  
의 시인들』, 서울: 나남.
- 이한창(1977. 6). 「민족문학으로서의 제일 동포문학 연구」, 『日本語文學』  
제3집, 韓國日本語文學會.
- 林鍾國(1966. 8). 『親日文學論』, 서울: 平和出版社.
- 정병욱(1960).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60).
- 정재철(1983. 1).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의 교육」, 한국교육사연구회 편, 『한  
국교육사』, 교육출판사.
- 趙鄉(1958. 10). 「二十年的 발자취」, 『自由文學』, 자유문학사.
- 홍기삼(1997. 4). 「한국문학과 재외한국인 문학」, 『작가연구』 제3호.
- 飛島井雅道(1972. 11).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史論』, 東京: 八木書店.
- 三好行雄 外 編(1994. 6). 『日本現代文學大事典』, 東京: 明治書院.
- 小田切秀雄(1965. 3). 「金達壽의 獨自性」, 『新日本文學月報』 제38호, 集英社.
- 任展慧(1994. 1).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の歴史』,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川村溱(1994. 봄). 「在日韓國人文學とは何か」, 『靑丘』 제19호.

<Abstract>

A study on Japanese poems of the native  
poets of Busan & Kyungnam area in  
Japanese literary world in 1910~1945

Park, Kyung-Su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d illuminate Japanese poems of native poets of Busan & Kyungnam area in Japanese literary worl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1910~1945).

First of all, I assist on that Korean poets' poems written in Japanese in Japan literary world are sure to be included in Korean literature. Because Korean poets in Japan could not help writing their poems by not Korean but Japanese to express their thought. So we have to understand on historical special conditions of those days(1910~1945).

I found out that Kim, Beong-Ho(金炳昊: 1906~1961) and Jo, Hyang(趙鄕: 1917~1984) as native poets of Busan & Kyungnam area wrote several poems in the Japanese literary world in Japan.

Kim, Beong-Ho, who was born in Jinju, would be involved in the KAPF(i. e. the Proletarian Federation of Korean Artists) in Korea in 1920~1930, and he published several works in Japanese literary journals, 《Japanese Poets (日本詩人)》 and the others in Japan. And then I found that he was not a poet who published a collected poems 《A shout in the wilderness》 on 1949, and was a different person with the same name. I can say that he wrote poems based on national identity. Especially his poem, <I am a Korean>, expressed the sorrowful life of Korean wandering people and immigrants in Japan in those days.

Jo, Hyang as a native of Masan, published several Japanese poems in 《



Japanese Poetic World(日本詩壇)》 in 1940~1945. In his Japanese poems he expressed the love of his family, the consciousness of hometown, and the love feelings of youth. And most of his poems were works by skilled rhetoric based on delicate sensibilities, and showed a marked trend to the romanticism. But it is so sad that he leave a pro-Japanese poem, <the wings>, which follows Japanese line in the Pacific War. Of course, we need to consider that their poems were published under the very oppressive measure on public opinion at that times.